



**EU, 한국상품에 반덤핑 공세**  
PET필름 등 6개제품 타겟

EU가 이번 달부터 PET필름, 타이어, 전자저울, D램, 비디오테이프, 철강제품(세이프가드 조치) 등 6개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 대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U의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반덤핑 대공세가 예상되는 6개 제품의 97년대 EU 수출금액은 약 30억달러로 총 EU 수출금액의 17.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 87년 업계로부터 반덤핑 혐의 제

소가 있었으나 무혐의 종결된 적이 있는 PET필름의 경우에도 다시 제소 움직임이 있다.

한편, 지난 89년 6월에 평균 2.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다 금년 1월 규제가 종료된 비디오테이프의 경우에도 업계 내에 반덤핑 혐의 제소 움직임이 있다.

EU업계가 이처럼 한국상품에 대해 대거 수입규제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IMF 체제 이후 우리의 물량위주 수출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반덤핑 규제 등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면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국내 동종업계간 공동보조를 통해 시장관리 측면에서의 수출마케팅 전략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캐나다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원단 수입희망  
가격 및 품질 협의 후 수입물량 결정**

캐나다 Multisac사가 포장백 제조에 사용할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원단을 수입코자 한다. 수입물량은 가격 및 품질이 맞으면 결정할 계획이다.

▲ 수입희망품목

- Woven and Coated/Laminated Polyethylene and polypropylene fabrics for making bags and covers

- Industrial Quantity

■ 연락처

Multisac

8600 Decarie Local 60, Montreal, Quebec, Canada H4P 2N2

Tel : 1-(514)-344-7227

Fax : 1-(514)-737-4288

E-Mail : info@multisac.com

**레바논, 쇼핑백 제조기계 등 구매 희망  
9월 26일 방한 예정**

레바논의 유력 쇼핑백, 매트리스 제조업체인 Ayoub Industries Et Commerce Sa사의 사장이 플라스틱 쇼핑백 제조기계를 비롯, 매트리스 제조기계, 폴리에틸렌 필름 등에 대한 수입상담차 오는 9월 26일 방한할 예정인데 방한에 앞서 국내 해당업체와 충분한 사전상담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80년에 설립된 Ayoub사는 Primflex라

는 자사 브랜드로 매트리스, 플라스틱 쇼핑백, 접착 테이프를 주생산 품목으로하는 종업원수 100여명 정도의 중견 제조업체이다.

▲ 수입희망 제품

- Plastic thermo forming + Printing machine

- Mattress manufacturing machinery

- Polyethylene films + Sheets for shopping bags

- Polyethylene granules(Hi-Density)

■ 연락처

Ayoub Industries Et Commerce Sal

Chafic Ayoub(Primaflex), Shell Str. Borj Hammound, P. O. Box 11-9693 Beirut, Lebanon

Tel : 961-1-259900, 259901, 259902, 259903

Fax : 961-1-259909

E-Mail : Ayoub Ic@Primaflex.Com.Lb

**터키, 최초 석유화학단지 조성  
초기 폴리스티렌 연 4만톤 생산예정**

터키는 8월 최초로 민영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Yumurtalik 자유무역지대 내에 건설될 이 프로젝트에는 총 4천만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터키 Baser Petrokimya사가 수행한다.

또한 미국기업 51개사가 본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1,500만달러를 대여했다.

단지가 조성되면 Baser사는 연간 4만톤 가량



의 폴리스틸렌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Baser사 부회장에 의하면 99년 6월까지 완전자동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00년 이후에는 터키 폴리스틸렌 수요량의 75%에 해당하는 8만톤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터키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Petkim사에서 터키 폴리스틸렌 수요량의 30% 가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수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 892만3천달러의 폴리스틸렌을 터키에 수출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 동기대비 31.2%가 증가한 624만3천달러를 수출했다.

따라서 이번 공단이 조성되면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폴리스틸렌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크라프트라이너지 수입 희망  
기존수입선 한국업체 전환 추진**

필리핀 Cavite Packaging사가 크라프트 라이너, 골심지를 한국으로부터 수입코자 적정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

현재 이들 제품을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폐소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선적부터 인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차체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한국 등지로 수입선을 전환코자 한다.

찾고 있는 크라프트 라이너는 150~200GSM, 골심지는 115~125GSM이며 월 1천M/T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락처

Cavite Packaging Corp.

Km.51 Brgy., Panungyanan, Gen. Trias, Cavite, Philippines

Tel : +632-6363191

Fax : +632-6361600, 6321123

**헝가리 PET필름 수요 감소세  
포장재료 다양화 원인 전망 수입의존**

헝가리에는 PET 필름 제조업체가 1개 있으나 제조량이 얼마 안돼 전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품이 충당하고 있다.

이 내수생산업체는 올해에도 PET필름을 소량 생산할 계획이고 9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99년부터의 제조량은 연간 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사용용도는 포장용 PET필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7년 수요량은 수입량과 동일한 수치로 물량기준 649톤, 가격기준 317만달러에 다다랐다.

PET필름 수출국은 주로 EU국가들로 독일의 수출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분할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수입물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헝가리에서의 PET필름 사용용도가 포장재인데 다양한 포장재료가 개발되면서 PET필름 사용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PET필름 수입량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포장재료가 다양화되면서 PET필름의 포장재 사용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포장재 원료의 기호변화가 뚜렷한 편이다. 즉 가격이 비싼 PET필름보다는 가격이 싼 PVC 포장자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관세율은 몇 개의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MFN 기본세율(한국 등) 7.6%, GSP 수혜국 5.0%, EU회원국 0%,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회원국 0%이다.

헝가리에는 내수생산이 의미가 없고 이 제품 자체가 수입 및 도매상을 경유해 유통시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매형태로는 판매되지 않는다.

PET필름의 엔드유저들이 직접 대량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식품산업, 건축산업, 인쇄산업 및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일반적으로 PET필름 사용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헝가리에서는 주로 포장재료로 사용된다. 포장재료로 사용되는 PET필름은 포장기계의 사양에 맞는 고품질이다.

PET필름 주요 수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인데 주요 이유는 헝가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장기계가 이들 국가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포장기계 공급자들은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Foil의 정확한 품질과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포장기계 공급자는 포장재료 원자재 공급기업으로 모국기업을 추천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로는 건축산업 및 전기산업 등 특수분야로 이들이 사용하는 PET필름도 특수사양에 포함되며 구매수요로 품질수준이 가장 중시되고 가격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PET필름은 엔드유저가 직접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특별한 유통채널이 없다. 일부 특수포장회사들은 포장재료를 직접 수입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포장회사들은 포장기계가 없거나 캡파가 부족한 회사를 대리하기도 한다.

헝가리 PET필름 시장에서 EU 수출상의 경쟁력이 막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헝가리의 PET필름 수요자인 엔드유저들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입수하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 공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PET필름의 잠재고객에 관해 시장스터디를 시행하고 사용 중인 Foil, 포장기계, 포장재료의 품질수준, 포장재료 공급상에 관한 정보를 추적해 필요시 수입선을 전환토록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자들은 공급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대량 비축할 필요없이 필요시 주문해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년에 2~4회 주문하고 있어 공급계약 체결 시 지속적인 딜리버리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헝가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형 수입상의 필요사항, 제품의 품질수준 및 딜리버리 조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 상세히 서베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기타 가격조건으로 현재 주요 수출국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산보다 20~30%는 낮게 제시해 초기 시장진출을 위해 수입선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PET필름의 특성상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존 거래선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초기 시장진출이 가능하다.



수입상에 관한 문의는 KOTRA 상품조사부 (담당 임선집, 551-4339)로 하면 된다.

**오만, 포장기계 구매 희망  
내수 전량 수입 의존**

오만의 3대 그룹회사 중 하나인 Zawawi Group of Companies 계열사인 Riyam Investment & Trading Est. LLC(RITEL)가 포장기계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만에는 포장기계 생산업체가 전무해 국내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수입희망 제품

Shrink Wrapping Machine for wrapping collated products, which can be used in a dairy industry and whose parts are made out of stainless steel

■ 연락처

- Riyam Investment & Trading Est. LLC(Perfumes Division)

P.O. Box 879, Postal Code 113, Sultanate of Oman

Tel : (968)7716393

Fax : (968) 7747810

E-Mail : rite@omzest.com

**홍콩, PVC레진 수입희망  
월 40ft 1컨테이너**

PVC제품과 원료를 수입,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 홍콩 Carford Industrial사가 PVC레진 수입

을 희망하고 있다.

▲ 사양

- 품명 : PVC Compound(PVC판 및 시트의 원료로 입상 또는 분말상태)

- 최대 내열 : 100℃

- 최대 내전압 : 300~600V

- 품질관련 UL(미국) 허가등급 : VW-1

- 품질관련 CSA(캐나다) 허가등급 : OFT(이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가능)

- 수입희망 물량 : 40ft 1컨테이너/월(확대가능)

■ 연락처

- Carford Industrial Ltd.

Unit 2,13/F, Hungtat Ind. Bldg., 43, Hung To Rd.,

Kwun Tong, Kowloon, Hong Kong

Tel : (852)2341-8101

Fax : (852)2343-7158

**코스타리카, HDPE 공급과열  
전량수입, 차후 수요 97년 수준과 비슷 예상**

코스타리카의 HDPE 총 수요규모는 3천6백 20만달러로 국내 생산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수입 증가율을 보면 96년에는 전년대비 0.5% 감소세를 보였으나 97년에는 전년대비 377.2% 급증세를 보여 이상 과열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입은 97년 수준에서 정체 내지는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수입관세 1%, 소비세 0%, 법6946호세 1%, 판매세 13% 등 합계 15.26%를 부과하고 있다.

아직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외국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산은 97년 평균 수입가격 기준 0.87달러/kg 으로 브라질산에 비해서는 20%, 캐나다산에 비해서는 17.5%, 미국산에 비해서는 20%, 베네수엘라산에 비해서는 6%가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산은 신용장 조건만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미국산에 비해 최소 5%의 신용장 개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다고 한다.

코스타리카시장은 시장이 협소해서 소량주문 위주이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량 위주의 수출전략으로는 시장개척이 불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여타 중남미국가들보다 커미션이 에이전트의 역할이 매우 강력하므로 이들 유틸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코스타리카 업체들은 납기를 중요시하므로 바이어가 요구하는 시기에 물품을 적기 인도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산이 CIF기준으로 다른나라 제품보다 비싸므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업체들은 납기를 중요시하므로 항상 약속된 기일내에 상품을 수입상에게 도착하도록 공급해야 한다.

지불조건에 있어서 미국회사들처럼 신용장이 드래프트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OTRA 상품조사부(담당 임선집, 551-4339)으로 하면 된다.

**한국산 PET필름 직접 수입 움직임**  
폴란드업체 구매량 커지면서 간접방식서 전환

폴란드의 97년 총 PET필름 수입규모는 2300톤이다. 주로 폴란드 진출 외국제조 업체나 폴란드 수입 에이전트가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선은 벨기에, 영국, 독일 등의 서유럽인데 Poland SA(핀란드), Hoechst Roussel Poland(독일), ICI Poland(영국), Du Pont Conco Poland(미국) 등의 회사가 폴란드에 자회사를 두고 직접 수입한다.

97년 PET필름 수입금액은 1100만달러로 228만4천톤에 달한다.

96년에 비해 물량은 9%가 증가했으나 금액은 12%가 감소했다. 수입증가율은 96년 56%에 비해 크게 줄어든 9%였다.

감소배경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점, 그리고 수입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PET필름은 97년 통계상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서 전체 수입의 76%를 들여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서유럽국가에 수출된 한국산이 폴란드에 들어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통계상 한국산의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산이 반입되고 있다.

PET필름 시장은 매년 꾸준하게 10~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업체가 물건을 선편으로 독일 함부르크의 보세창고에 보내면 폴란드 수입상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일에서 폴란드까지 육로로 운송 및 통관해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수출업체는 직물을 독일 함부르크에 보내 놓고 바이어로부터 수입잔금과 B/L을 바



꾸면서 물건을 인도한다.

대부분의 포장 및 사진필름 제조업체들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의 생산업체로부터 PET필름을 구매한다. 또한 이들 생산업체들은 수입물량의 일부는 국내의 소규모 수요업체에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

PET필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계절에 따라 구매량 및 가격변동이 크게 때문에 바이어들과의 가격협상시 시기적인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 폴란드 바이어들은 한국산을 그동안 서유럽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해 왔기 때문에 한국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최근 들어 구매량이 커지면서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바이어와의 거래시 바이어들은 대부분은 10~30% 현금 또는 T/T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는 COD조건을 주장한다. L/C개설만 고집하면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동구시장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간 30%이상의 은행금리와 L/C개설시 은행이 110%의 현금 또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금 지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후 인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제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각 지방도시에 여러 도매점을 운영한다거나 공급한다고 주장하나 대개 영세한 규모임을 감안해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제품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각 지방도시에 여러 도매점을 운영한다거나 공급한다고 주장하나 대개 영세한 규모임을 감안해야 한다.

폴란드 바이어들의 상당수는 인보이스 가격을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바이어들은 수입 후 딜러에게 제품을 넘길 때 VAT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변칙거래를 하고있다.

주요 화학제품 생산업체들은 폴란드에 합작회사를 설립해 이들로 하여금 수입을 대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다.

폴란드의 PET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폴란드 생산업체들은 CIS국가에 대한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직접 수입도 추진하기 때문이다.

### 중국, 합성수지 시장 수요저 확보 노력 우리업체 진출 노력 미흡

90년대 접어들면서 고도성장을 거듭한 중국의 합성수지 관련 공업은 지난 96년 수지 생산량 4,953kt, 세계시장 점유율 3.79%로 세계 6위의 생산대국이란 성적을 거두었고 97년엔 5,700kt의 생산고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성수지 제품 생산량도 95년 9,944kt에서 96년에는 1만5,742kt에 이르러 세계 2위의 위치를 차지했으며 97년에는 약 1만6천kt의 생산고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빠른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합성수지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가공기계산업도 성장을 거듭해 95년 불완전 통계에 의하면 합성수지 가공기계 생산량은 약 8만5천대,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향진기업의 생산량을 포함할 경우 수량으론 이미 세계 최대의 생산대국이 됐다.

중국은 합성수지 수입 대국이기도 하다.

중국이 늘어나는 생산량을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비를 증설했으나 대부분 범용수지 생산에 치우치고 생산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미쳐 품질이 좋지 않고 가격도 높아 국내 수요자들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90년 중국의 합성수지 생산량은 2,268kt, 96년에는 4,953kt, 97년엔 5,700kt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증가율 13.7%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합성수지 제품은 각각 4,435kt, 1만 5,742kt, 1만6천 kt으로 연간 20.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합성수지 제품 생산량과 원료 공급량의 차이는 수입을 필요로 했다. 비록 최근들어 설비증설로 인해 자급률의 갭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추세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간 수입규모는 50억~70억달러에 달한다.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90년부터 97년까지 수입량은 1,429kt에서 8,900kt로 증가해 연평균 27.5%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96년엔 수입 총량이 세계 합성수지 교역량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고민하는 전 세계 합성수지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수입시장을 가뭇속의 단비처럼 여기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합성수지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기본적인 생산량 부족 이외에 첫째 중국산 합성수지 품종이 단순하며 전용수지가 적고 또한 상대적으로 범용수지가 많은 점, 둘째 품질이 낮고 제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셋째 생산원가가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수입 또는 합자 생산하는 PE, PP의 종류는 1천개가 넘고 중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품종은 160개나 되어 전체 시장에서 유통되는 품목은 1,300개 가까이 되는데 이중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은 110개에 불과하다.

LLDPE의 경우 모두 410개의 품종이 있으나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11개 품종에 불과하며 생산제품도 범용의 박막급(필름)이나 사출용 수지에 그친다.

전용수지의 예를 들면 Polyolefine 계열 제품 생산량은 석유화학제품 총 생산량의 13%에 불과하며 나머지 87%는 범용제품이다. 이 중 저밀도 폴리에틸렌 생산량은 22%, LLDPE는 4%에 불과하다. 폴리프로필렌의 예를 들면 85년 미국이 생산한 코폴리머는 20%, 93년 25%, 97년에는 3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은 이미 40%를 넘겼으나 중국에선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품목별 수요와 생산추이를 보면 96년 BOPP 전용수지 국내시장 수요는 300kt에 달한 반면 생산량은 50kt에 불과했다. 96년 전선 제작용 전용수지 수요는 200kt이었으나 생산량은 13kt에 그쳤다.

더욱이 생산가능 품목 중 66kV와 110kV의 고압전선 제작용 합성수지는 아예 목록에서 빠져있다. 이밖에 많은 전용수지 예를 들어 세탁기 내부 통 제작용 수지(수용률 거의 만족시키지





못함), 자동차, 가전 등 각종 산업에서 필요로 한 고급 수지는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 플라스틱 산업구조의 구조적인 모순점으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플라스틱 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늘어나는 범용수지의 재고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로 90년대 들어 수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했다. 1978년 1억달러에 불과했던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이 92년에는 12억1천6백만달러, 96년에는 32억달러, 97년에는 37억달러로 급증했다. 일부 품목은 급격한 수출 증가로 인해 무역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비닐 포장백으로 유럽시장에서 여러 번 반덤핑 제소를 받아 현재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수출국가는 아시아가 46.29%, 북미주가 31.10%, 유럽이 17.64%이며 국가별로 보면 대만 26.52%, 일본 21.8%, 한국 18.83%, 미국 10.09%, 홍콩 4.43%로 이들 5개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81.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 플라스틱 가공기계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 증가와 더불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플라스틱 가공기계 생산 능력은 이미 시장수요를 초과했는데 이 중 중국산은 전체 가공능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97년 200개 플라스틱 가공기계 생산공장 조사통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총생산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수입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사출기이고 그 다음이 압출기, 블로우 몰딩기, 열성형기 순이다.

한편 수출도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다. 경공업 기계협회는 96년 플라스틱 가공기계 수출액은 3천만달러 이상, 97년에는 6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가공기계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산 플라스틱 가공기계의 제작수준이 높아져 어느 정도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산 기계류 수준이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제품을 제작하기에는 아직 미흡해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조절능력이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고성능, 정밀사출기 수요는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압출기류는 중국 내에서 비교적 공백이 큰 분야이다. 이는 압출기로 생산하는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해서 종류별로 별도의 기계가 소요되나 중국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수요를 뒷받침할 기술력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중국의 수출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일정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도 합성수지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자재 산업을 비롯해 각종 포장재 수요도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더욱 확대되며 가전 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문구류 산업의 합성수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으로써는 그동안 무역상들을 대상으로 한 수지시장 공략 이외에 수지사용업체들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요처를 개발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합성수지 생산에 나서 공백상태의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㉞